

나주 학생들은 좋겠네...9년째 해외 어학연수 혜택

시, 초·중생 연수경비 50% 지원...저소득층은 무료 올해도 60명 미국으로...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주력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미국과 중국으로 어학 연수를 떠난다. 미국은 3주, 중국에서는 2주 간 머무르며 외국어를 배우며 문화체험을 한다. 수백만원이 드는 경비 중 절반만 내면 된다. 저소득층은 '무료'다.

국내 대학에서 진행되는 2주짜리 기숙형 중국어·영어 외국어 캠프는 전체 비용의 30%만 내면 참여할 수 있다. 시골인데도 경쟁이 치열해 필기 시험에 인터뷰 면접까지 봐야 한다. 나주시 초·중학생을 얘기다. 이 정도

면 '시골'이라고 무시할 게 못된다. 초·중학생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혜택'이다. 이농(離農) 현상과 저출산과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뒀다가는 심각한 인구 유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교육 지원 정책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1년 여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에 30명씩 미국으로 3주 간 어학 연수를 다녀왔다.

9년째인 올해도 오는 7월 14일부터 초·중학생 30명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 웨데치밸리 대학으로, 중학생 30명은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하워드커뮤니티 대학으로 어학 연수를 떠난다. 나주시는 연수 경비 50%를 낸다. 선심성 교육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특정 학교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학교별 학생 1명 이상을 안배하고 다자녀·저소득층 학생 18명을 선발해 연수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

현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나주시 입장이다. 미국 뿐 아니라 지난 2017년 겨울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중국 어학 연수도 지원한다. 초·중학생 20명을 선발해 보낸다. 동선대를 통해 2주짜리 기숙형 외국어 캠프도 8년째 열고 있다. 영어·중국어로 나눠 200여명씩 참여하는 데 1인당 100만원 가량 드는 비용 중 70%를 나주시가 지원한다.

열악한 외국어 교육 여건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지역민들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초·중학생 자녀를 둔 나주시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대표적 교육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나주시는 올해만 22억원을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방침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교육력 향상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SRF발전소 갈등 2년...나주는 시위 중

주민 600여명 가동 반대 집회 민관협력 거버넌스 제역할 못해 영향조사 위한 시험가동도 무산

나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플래카드가 가득하고 시위도 끊이지 않는다. 벌써 2년째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다.

◇시위만 2년째...=지난 13일 나주시청 앞에서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광전노협), 자발적 시민모임 등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선용 시의회 의장을 향한 집단 항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아예 풀뿌리 정치가 죽었다는 의미로 지역 정치인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만장기를 앞세우고 행진도 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시위는 지난 2017년 8월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차량에 걸고 지역을 돌며 반대 활동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범대위측은 지난해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빛가람호수공원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13일까지 87회째로,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범대위,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가 끝나면 다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혁신도시와 나주시 지역 곳곳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플래카드가 내걸린 상태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 외에 오랫동안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환경유해성 검증은 거쳐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갈등도 그대로=오랜 기간 동안 시위가 열리고 있음에도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나주 지역민들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간극을 좁히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범대위,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렸지만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다. 이들은 8차례나 회의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60일간 본가동을 실시키로 하는 등 정정 합의까지 이뤄졌다가 지역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후부터 거버넌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민감시단이라는 단체는 최근 거버넌스의 무책임함과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주민 600여명이 13일 나주시청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 뒤 발전소 가동 반대와 지역 정치인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나주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상생협력 강화 한전KDN과 '신재생에너지 융합 노지형 스마트팜' 업무 협약

나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한전KDN과 '신재생에너지 융합 노지형 스마트팜 우호 업무협약' (사진) 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 융합 노지형 스마트팜'을 빛가람동 일대 공영터밭에 조성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스마트팜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전통 농업 분야에 정보

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스마트 관수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모바일 서비스 제공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소규모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 협력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분야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도·농간 상생발전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공익활동가 양성사업 참가자 나주시, 24일까지 30명 모집

나주시가 오는 24일까지 '2019년도 나주시 공익활동가 양성사업' 참가자 30명을 모집한다.

마을 및 주민자치활동 경험이 있거나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익 활동을 계획, 실천할 시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나주시청 홈페이지나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읍·면·동별 1~2명의 예비공익활동가를 선정한 뒤 7회에 걸친 기본교육 이수자를 공익활동가로 최종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성사업에 참여했던 제 1기 공익활동가 16명은 ▲지역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나눔 바자회 ▲찾아가는 문화나눔 ▲마을 경관개선 및 어르신 돌봄 사업 ▲경로당 및 부녀회 활성화 등 공익활동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는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061-337-9903)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시내버스서도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세요

70대에 서비스망 구축...이달부터 제공 중

나주시 지역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13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시내버스 70대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 이달부터 제공중이라고 밝혔다.

탑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시스템에 접속한 뒤 'PublicWifi@Bus-Free'를 선택, 연결하면 무료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시는 하반기까지 버스 66대에 추가로 무

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나주시는 20개 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36곳, 금성관·영상테마파크 등 관광지 29곳, 다중이용 시설 2곳, 버스정류장 48곳 등 115곳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나주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망이 제공되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나주시 제공>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량 건조 동축분말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